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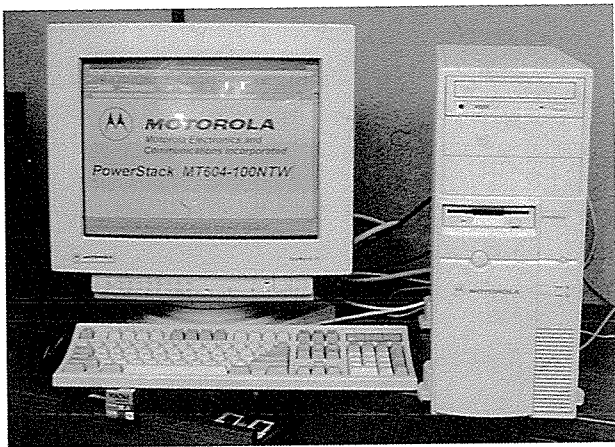
■ 일본 파나소닉사의 시스템 'PD' 출시

4배속 CD롬 드라이브와 광자기 디스크가 하나로 합쳐진 PD (Power Drive)가 올 가을 시판될 예정이다. 플로피디스크의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로 각광받는 이 제품은 4배속 CD-롬 드라이브와 650 MB 광자기 디스크를 겸용하기 때문에 CD-롬도 읽을 수 있고 광자기 디스크에도 쓸 수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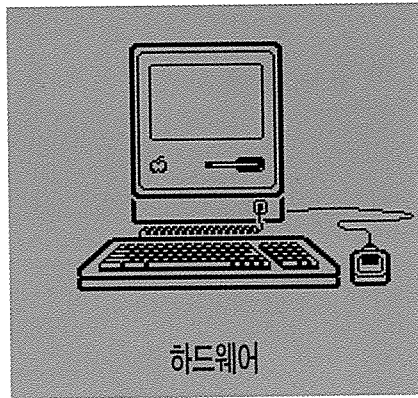
기존 광자기방식이 아닌 상변화(Phase Change)에 의해 데이터의 소리와 입력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며, 마이크로 옴티컬헤드, 중첩쓰기가 가능한 광디스크, 자동 로딩 메커니즘을 이용해 구현됐다. PD는 셋톱박스, 대용량 오디오, 비디오 자료 저장에서부터 네트워크 서버, 전자출판, 전자도서관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드라이브의 경우 내장형은 80만원선, 외장형은 90만원선, 미디어는 8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 모토로라 반도체통신 '파워스택 MT604 - 100'



매킨토시용 CPU인 68K시리즈와 VME보드 등으로 유명한 모토로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워PC CPU계열로서 603/100MHz를 탑재한 RISC PC '파워스택 MT604-100' 모델을 선보였다. MT604는 외형상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 PC와 다르게 없다. 미들타워형의 본체와 17인치 모니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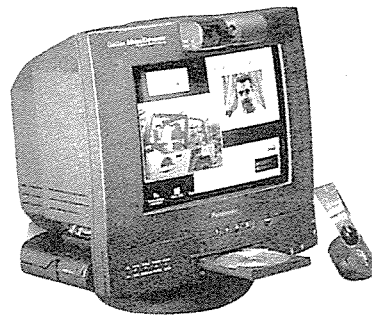
키보드와 마우스가 전부이다. 그러나 32비트 슈퍼스칼라 방식을 지원하는 100MHz의 MPC604칩을 중심으로 최대 512KB까지 지원하는 레벨 2 캐쉬 소켓 PCI & ISA 확장슬롯 5개 (공용슬롯 1개 포함), SCSI-11방식의 디스크 컨트롤러, 그리고 그래픽 컨트롤러와 사운드 칩, 이더네트 컨트롤러 등이 온보드 형태로 제공되는 메인보드가 시스템 내부를 차지하고

있다.

MT604는 현재 윈도 NT 3.51과 IBM AIX 4.1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모토로라측은 운영체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솔라리스와 파워PC용 OS/2, 넥스트스텝, 그리고 매킨토시용 운영체제인 코플랜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MT604는 일반 PC와는 달리 시스템 BIOS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스템 유틸리티 '뎀웨어'를 제공한다. 이는 시스템 모드와 디버거 모드로 이루어져 있어 부팅될 때마다 시스템 상태점검 및 선택적 부팅작업을 하며 시스템 환경 구축에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조정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모토로라 파워PC(MPC)버전을 놓고 보았을때 펜티엄과 가장 근접한 제품은 100MHz와 120MHz를 꼽을 수 있으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MPC는 604의 100MHz와 120MHz버전이다.

■ 캐논 멀티미디어 모니터 '갈릴레오 익스플로러'



▲멀티미디어 모니터 갈릴레오 익스플로러

우수하며, 모니터 양쪽에는 스피커와 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다.

최근 캐논이 새로운 디자인의 멀티미디어 모니터인 갈릴레오 익스플로러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0.28MM 도트피치의 17인치 모니터로 실제 가시면적이 16인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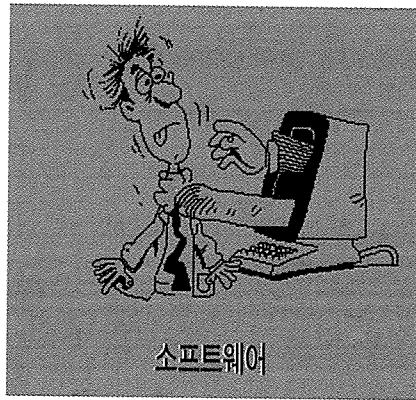
또한 모니터 옆면에는 VCR이나 캠코더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을, 반대 쪽에는 헤드폰과 마이크로폰 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는 TV 튜너, 무선 헤드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제품의 가격은 1천99달러.

■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션의 어원은 조명(Illumination), 밝게 하다(to make light)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어떤 대상에 빛을 비추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뜻으로 어떤 사물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는 그림을 뜻한다.

과거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로 인식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시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회화'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90년대 컴퓨터의 발달로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도 한 부류로 나뉘지게 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로는 잡지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카툰, 캐리커처, 캐릭터, 컷, 풀리추 등이 생활 속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진을 스캐닝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디지털 이미지 에디팅 프로그램(Digital Image Editing Program)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



어 아도브사의 포토샵이나 엘더스사의 포토 스타일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광고 표지나 포스터, 회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때 쓴다.

이 결과물을 출력할 때는 많은 데이터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용지 사이즈 A3(297×420mm) 정도의 포스터인 경우 약 15~20MB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깨끗한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다. PC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에디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2MB 이상이 필요하며, 큰 용지 사이즈의 경우 64MB 이상의 RAM이 있어야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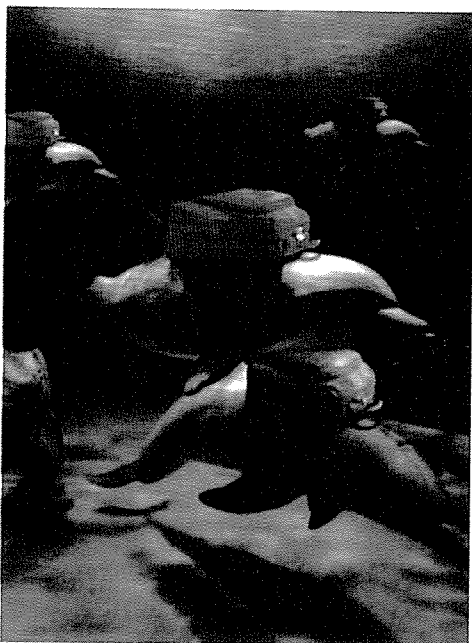
또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은 벡터 이미지 프로그램(Vector Image Program)이 있다. 아도브 일러스트레이션, 코렐드로우, 마이크로그래픽스사의 디자이너 등이 그것이다. 벡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화면상의 그림들이 도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인이나 도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적이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과거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시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회화'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인쇄 매체를 통하여 다량으로 다수의 대상에게 전해지는 특성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미술의 회화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신선하고 개성적인 일러스트 작품이 현실의 회화로 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썬테크노, 'CLEAN PHONE'

'썬플라워'라는 자체 상표로 각종 휴대폰용 배터리팩을 제조하고 있는 썬테크노가 휴대폰의 패션을 선언하며 투명한 야광 수소배터리 및 하우징셋 '크린폰'(CLEAN PHONE)을 내놓았다. 모토로라 마이크로텍용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시스룩을 휴대폰에 과감히 도입, 내부 회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 시원한 느낌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계자체의 건조하고 밋밋함을 도회적인 세련미로 전환하기 위해 야광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매끄러운 사출로 촉감



▲ 포토샵이나 포토 스타일러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합성된 것으로 여행에 관한 그림이다. 직접 들고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찍은 듯한 느낌을 들지만 사실은 그림을 합성해 놓은 것이다.

도 좋다.

홈집과 충격에도 강한 '크린폰'은 투명 하우징과 600/1100mAh 2종의 투명 NiMH 배터리로 선보이는데, 특히 기존 외국산 제품보다 성능과 디자인이 앞서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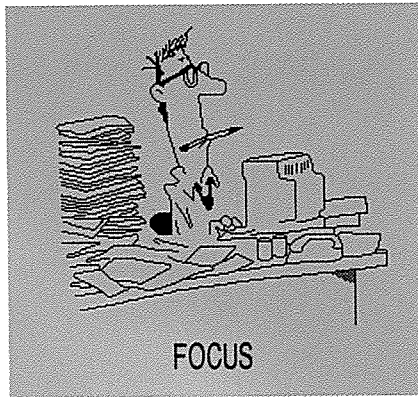
전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가 8월 24일 정식 개통되었다.

MSN이란 기존 네트워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에 깔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획기적인 통신서비스로서 모뎀만 설치하면 별도의 SW없이도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대화방, 자료실 등은 물론 인터넷 웹사이트를 누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MS사 빌 게이츠회장이 주창한 '손끝에서 정보를(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이란 미래비전을 구체화시킨 첫번째 제품으로 평가된다. '손끝에서 정보를'이란 PC 운용체계에서 정보통신, 인터랙티브 텔레비전, 주문형비디오(VOD), 디지털머니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 기술을 한꺼번에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MS사의 미래 비전으로서 미국내 대형 PC통신서비스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미 법무부가 윈도 95에 포함된 MSN기능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케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갓 서비스를 시작한 'MSN'이 전세계 통신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통신서비스와 PC운용체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윈도 95에는 언제든지 MSN에 가입할 수 있는 강력한 MSN전용 통신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통신모듈은 기존 통신에몰레이터와는 달리 대부분의 기능을 마우스만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멀티미디어 기능도 리얼타임으로 만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MS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독립정보제공자(ICP: Independent Contents Providers)가 8월 말 이미 2백개사를 넘어섰으며 PC통신서비스업체인 컴퓨서브



(CompuServe)와 아메리카온라인(America Online)은 8월 말 각각 3천개의 정보제공자(IP)를 확보하고 있고 1천여개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관련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요금체계이다. MS사는 컴퓨서브와 프루디지 등 대형 PC 통신서비스보다 절반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비싼 요금으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경우, 월 3시간을 기준으로 4.95달러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책정하였으며 한국사용자의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5천원 가량의 통신요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텔, 나우누리 등 기존 통신서비스가격이 월 9천9백~1만1천원이고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최소한 1만~2만원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MSN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MS는 MSN부가서비스 요금을 케이블 TV처럼 사용시간이 아닌,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크기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의 내역 및 가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PC통신업체를 초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사용자는 11월경이면 윈도 95 정품과 함께 MSN정식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신망 사정에 따라 인터넷 접속은 내년부터는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 MSN이 한글화되려면 4~5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는데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 비하면 이의 국내활용 DB가 전무하기 때문에 MS가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MSN서비스의 주체가 삼성, 삼보, 금성, 현대, 대우 등 5대 PC업체와 주요 언론사의 참여로 설립된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가 개시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MSN의 성패를 점치는 것은 시기상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운용체계에 내장된 강력한 통신기능, 기존 서비스의 절반 수준인 사용요금, 세계 최대규모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PC통신, 무료 인터넷서비스 등 메가톤급 핵무기로 중무장한 MSN이 기존 PC통신업체를 뒤흔들어 놓을 것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MS사, '윈도 95'

차세대 32비트 운영체제(OS)인 '윈도 95'가 마침내 미국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는 16비트 OS로 제어되던 64비트 및 32비트 PC가 32비트 OS와 결합돼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윈도 95'가 차세대 PC환경을 지배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등장은 세계 컴퓨터산업 환경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스크톱과 휴대형PC가 앞으로 컴퓨터 환경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의 '윈도 95'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번째가 도스없어도 PC를 바로 GUI상태로 부팅시켜줌으로써 사용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는 점이다. '윈도 3.1'과는 완전히 다른 '윈도 95'의 초기화면 GUI는 그래픽처리된 단 몇개의 객체(object)만을 사용하고 있어 명료하고 간단하다는 느낌을 준다. '시작(Start)' 버튼, '작업 표시줄(taskbar)', '나의 컴퓨터(My computer)', '네트워크환경(Network Neighborhood)', '휴지통(Recycle Bin)' 등이 그것이다.

두번째는 주변기기나 다른 하드웨어 접속시 더 이상 사용자의 수동작업이 필요없게 된 'PnP(Plug and Play)' 규격의 지원이다. 한 예로 사운드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윈도 3.1에서는 각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고 하드웨어적인 설정을 거의 수동으로 맞춰 주어야 했지만, '윈도 95'에서는 대부분의 사운드카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하드웨어적인 설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세번째는 데스크톱 환경에서 인터넷나 온라인서비스 환경에 자동 접속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를 기본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작업환경을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함께 내장된 'MSN'은 실행중 곧바로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단순한 SW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합시켜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윈도 95'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도스와 '윈도 3.X' 용으로 개발된 응용프



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실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컴퓨터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윈도 95'의 본격 등장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과장은 주변기기나 멀티미디어기기의 신규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386 및 485SX급 구형 PC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PC업계에 또 다

른 활력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윈도 95' 자체실행에는 기본메모리가 4MB에서 8MB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엄청난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회사들의 호황도 예상되고 있다. (설치환경도표)

'윈도 95'가 새로운 수요를 촉발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PC산업은 물론 주변기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 부품 등 관련산업에 모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MSN' 사업과 맞물려 PC통신사업까지도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95'를 수익사업으로 삼고 있지 않다. 컴퓨터산업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무기로 삼고 있으며 실제수익은 '오피스95' 등 응용 SW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요컨대 '윈도 95'는 기업간 시장쟁탈전 양상을 넘어서 기업의 흥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인 것이다. ⑤7

◇'윈도 95' 설치 요구사항

	윈도 95
기본 최소설치 환경	i386SX/4MB
실제 최소설치 환경	i486DX2/8MB
실제 사용 메모리	16MB
네트워킹 기본지원	기능
도스 / 윈도지원	기능
가 격	영문판 업그레이드 버전, 10만원 영문판 정품 버전, 25만원
업 그 레 이 드	영문'윈도 3.X'사용자는 영문'윈도 95'로 업그레이드 가능. 한글'윈도 3.X'와 영문'윈도 95'는 코드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불가능.
출 시 예 정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태국 등 MS의 아시아 현지법인들은 '윈도 95'의 각국 언어판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면 '윈도 95'라는 제품의 이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판단, 오는 12월중으로는 모두 출시한다는 계획